

동남아시아 지역불평등과 발전 전략 검토

-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성우** · 백용훈*** · 정정훈****

요약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지역불평등 현황과 경제발전 정책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 해양부와 대륙부에 각각 위치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국가 사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지역불평등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두 국가의 경제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경제발전 정책은 경제자원이 집중되어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오히려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권한 조정의 실패는 자원배분의 합리적 조정과 계획된 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가로막았다. 본 논문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경제발전 정책의 재검토와 지역성장을 위한 정부 내의 역할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지역불평등, 균형발전, 인도네시아, 베트남

* 본 논문은 2018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용역, “동남아 주요 국가의 지역발전 현황과 균형발전 정책 적용방안연구: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와 추가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woo9505@korea.ac.kr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원, beakyh@hanmail.net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원, blue3j@gmail.com

I. 서론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사례로 국가 내 지역 불균형의 양상을 검토하고, 국가별 맥락에 따라 불균형 해소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국가를 사례로 하는 이유는 각각 해양부와 대륙부에 위치하는 국가이고, 신남방정책 하에 한 국과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상생 및 교류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단, 두 개별 국가는 지리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종족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 접근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지 않음을 미리 밝혀둔다.

경제성장은 모든 국가들의 최고의 관심 사안이며,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목표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은 국가의 재정과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으로 소득이 분배된다면 최상의 조합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소득분배의 불균형에 따른 계층별 양극화와 산업시설의 지역별 편중은 결국 경제성장의 동력 상실을 초래한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문이 개발경제학이며, 이는 개도국의 경제성장, 빈곤감소, 소득불평등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경제성장은 경제 내의 생산량과 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증가한 소득은 사회내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국민에게 적절히 돌아가고 이로 인해 빈곤층의 일인당 소득은 증가한다(한국국제협력단 2014, 77).

하지만 개발경제학의 목표가 빈곤감소와 소득불평등 문제에 초점이 있다는 점은 도리어 이의 해소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별도의 분과학문이 존재할 정도로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소득분배간의 연계효

과는 개발도상국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며, 경제성장의 결과가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계층별 양극화와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본 논문은 지정학적 조건으로 인하여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동남아 국가 중 도서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대륙부의 긴 반도형태의 베트남 국가 사례를 분석한다. 이 분석을 통하여 지역 간 불평등 현황을 검토하고, 지역 간 불평등 완화 방안을 모색한다.

Ⅱ. 기존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1. 기존연구 검토

지역불평등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여러 갈래로 진행되어왔다. 보편적인 사회과학적 분석의 주제로는 먼저 발전과 소득불평등에 대한 연구 경향을 꼽을 수 있다. 1955년 사이먼 쿠즈네츠(Simon Kuznets)는 한 국가가 발전할 때 처음에는 소득불평등도는 증가하다가 이후 하락한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Kuznets 1955). 쿠즈네츠는 선진국에서 장기적으로 소득불균형을 증가시키는 요소와 상쇄시키는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고 두 요소 중 어느 쪽이 우세한가에 의해 소득불균형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두 요소는 상위 소득계층의 저축의 집중과 산업구조의 변화가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밝혔다. 쿠즈네츠는 일반적으로 급속한 도시화는 소득불균형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시기에 도달하면 상쇄하는 요인들이 작용하여 소득불균형이 개선되게 된다고 보았다. 저개발국의 경우 불균형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반면,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이 주장은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서도 검증되고 있다. 로드릭과 알레시나(Rodrik and Alesina 1994)와 페로티(Perotti

1996)의 연구에서는 횡단면 분석을 기반으로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 간에 부(-)의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배로(Barro 2000), 리와 조우(Li and Zou 1998), 그리고 포베스(Forbes 2000) 등의 연구에서는 소득 불균형이 경제성장률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성장을 일정하게 이룬 다음에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지역적 불평등을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한 연구들도 있다. 선진산업국가들이 산업을 발전시키고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지역불평등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였다고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살라-아이-마틴(Sala-I-Martin)은 선진산업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지역 수렴을 경험한다고 주장한다(Sala-I-Martin 1996).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지역불평등 문제에서 있어서 다양한 현황을 보여주고 지역불평등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더 높다(Hill 2008, 45). 이 연구결과들은 선진산업국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불평등 문제의 일정한 해소가 필요하며, 개발도상국들이 더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루는데 있어서 지역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지역불평등이 더 심한 것은 개발도상국들이 선진산업국가들에 비해 덜 발전된 재정 균등화 메커니즘, 불균등한 제도적 질, 더 큰 시장 불완전성으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Shankar and Shah 2003).

그렇다면 불평등의 편차를 발생시키는데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는가? 소득불평등 정도의 차이는 인적자본(교육수준과 건강상태), 거주 지역(도시와 농촌 및 국가 내 여러 지역적 차이), 물적 자본의 소유여부, 개개인의 기술수준 뿐만 아니라 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Weil 2013, 419). 한 국가의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경제적 특성의 차이 자체가 매우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이러한 특성의 차이가 사람들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간 격차가 매

우 크게 나타나기 때문일 수도 있다(Weil 2013, 420). 한편, 일반적으로 후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경제개발도상국들은 자원의 의도적 편중 배분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 불균형 경제성장 전략을 많이 채택한다. 그 결과로 인하여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기도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이다.

한국은 불균형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한 결과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1980년대 이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00년대 들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주요 정책 의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전해정(2014)은 1990년에서 2012년 기간 동안 한국을 주요 지역별로 분류하여 지역 경제성장과 소득불균형의 동학적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성장과 소득 불균형은 지역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모형에서 각자의 충격에 대해 서로 정(+)의 반응을 보였다. 경제성장의 결과 계층 간 소득불균형이 심화되어 왔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 결과는 단순히 경제성장만 된다고 해서 불균형이 시정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소득 재분배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함의를 준다. 이진범(2003)은 빈곤층이 부의 재분배를 요구하기 때문에 불평등이 성장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유층과 기득권층이 현상유지적 성향을 강화하고 필요한 정책개혁을 방해하기 때문에 불평등이 성장에 유해한 효과를 갖는다고 본다. 개발도상국 경제에 있어서 구조변화의 중요성, 정책수립과정 및 국가의 강한 역할 등 재분배 정책이 있어야만 불평등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시각이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일정 단계의 경제성장을 거친 국가들은 지역불평등성을 약화시켜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판단과 실행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서

정부정책이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World Bank 1993, Rodrik 1995, Ranis 1995). 이상의 연구는 주로 동북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며, 지리적, 사회·문화적 맥락의 차이를 보인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구조적, 지리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는 조건이 어느 지역보다 많다. 다 종족 국가가 대부분이고 종족별 지역편차 역시 크게 나타난다. 더욱이 이러한 다종족성은 곧 지역적 불평등으로 귀결된다. 다 종족 사회일수록 소득수준이 종족집단 간에 너무 차이가 크면 아주 민감해진다(Kusnic and DaVanzo 1982, 17).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말레이시아의 경우 초기에는 자유방임적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1969년 종족 폭동으로 인해 불평등과 빈곤을 퇴치하고자 하는 개입주의적 정책이 추진된다. 지속적으로 말레이시아 정부의 정책추진 목표는 지역적 불평등이나 수직적 불평등이 아니고 종족적 불평등이었다(UNRISD 2010, 93). 말레이시아 정부는 1969년 인종폭동 이후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종족갈등을 야기하는 불평등과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부미푸트라에 대한 우대정책을 추구해왔다(이양호 2013, 127).

말레이시아처럼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지역 간 불평등, 종족 간 불평등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이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윈터스(Winters)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화 시대에 소수의 인도네시아 자본가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함으로써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었으며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Winters 2013; 2011). 인도네시아 2014년의 선거에서도 경제적불평등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으며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PD, Partai Demokrasi)이 참패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박재봉 2014, 56). 인도네시아 실제로 종족별, 지역별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는 심각한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불평등 개선에 있어 정부의 노력이 있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시민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역 간 불평등에 대하여 국가차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관계와 협력에 따라 지역별 경제적 격차(provincial economic disparities)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Vu, et al. 2011). 그리고 농촌과 도시, 지역(regions), 젠더 등의 인구 집단 간에 소득/임금 격차와 이에 따른 교육 및 보건의료에 대한 불평등을 규명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Nguyen and Luu 2015; Doan et al. 2015; Nguyen and Luu 2015; Luong 2015; Lee 2008; Rodger and Menon 2010; Nguyen 2012; Glewwe et al. 2002). 뿐만 아니라, 일부 연구들은 종족 집단 간 복지 혜택의 차이에 대하여 주목한 바 있다(Dang 2012; Singhal 2015; Van de Walle and Gunewardena 2001).

지역 간 불평등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은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매우 강조하고 있다. 스리스크안다라자흐(Sriskandarajah)에 의하면, 사하라남부 아프리카의 모리티우스(Mauritius), 남미의 트리니다드-토바고(Trinidad and Tobago)에서 전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팽창 적이고 복지지향적인 정책을 포함한 하나의 민족(one nation) 정책을 독립 이후 초기에 강력하게 추진하여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하였고 불협화음을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Sriskandarajah 2005, 65). 이 밖에도 많은 연구들이 지역 간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World Development Report 2009; Kaufman et al. 2003; Lessmann 2006; Kessler and Lessmann 2008). 반면에 정부의 역할이 가난한 지역의 경제적 성과를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Garcia-Mil ¢ and McGuire 2001).

위의 연구결과들을 기반으로 하여 생각해봤을 때, 지역불평등을 개선하거나 악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정부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지역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는 조건이 많은 동남아 지역에서 정부들이 경제성장과 지역불평등 해소를 위해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는지 검토하고,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들을 도출한다.

2. 분석 방법 및 사례선정 이유

동남아시아 지역은 매우 다양한 맥락에서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행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분석틀로 분석하기 힘든 상황이다. 본 논문은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불평등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대상 국가들로 도서부 지역 국가 중 인도네시아와 대륙부 국가 중 베트남을 선택하였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와 함께 현지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지역균형개발 관련 전문가 3인에게 이메일 인터뷰(2018년 7월~8월)를 진행했고, 이 중 2명의 전문가(Dr. Alen Ermanita, Dr. Maxensius Sambodo)에게 유의미한 인터뷰 결과를 획득 할 수 있었다.¹⁾ 베트남의 경우, 하노이에 위치한 베트남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Vietnam Institute of Economics)와 계획투자부 산하 발전전략연구원(Development Strategy Institute,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을 방문하여 전문가 인터뷰를 2018년 7월 진행하였다.²⁾

-
- 1) ①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국가 발전계획부) Dr. Alen Ermanita, ②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인도네시아 사회과학연구원) Dr. Rudolf Yuniarto,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인도네시아 사회과학연구원) Dr. Maxensius Sambodo (2018년 7~8월 이메일 인터뷰)
- 2) ① 베트남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 부이꽁뚜언(Bui Quang Tuan, 2018년 7월 12일 인터뷰), ② 베트남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지역경제연구부 부팀장 레반흥(Le Van Hung, 2018년 7월 13일 인터뷰), ③ 베트남 계획투자부 발전전략연구원 지역발전부 팀장 까오응옥란(Cao Ngoc Lan), 인프라발전부 팀장 레아인뚜언(Le Anh Tuan), 지역발전부 연구원 도안반민(Doan Van Minh, 2018년 7월 17일 인터뷰)

동남아시아 국가는 경제성장이 소득양극화 해소와 절대빈곤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동남아시아 국가는 1980년대 세계 경제 호황에 따른 경제발전으로 소득양극화와 절대빈곤의 감소를 경험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제적 성과가 직접적인 소득양극화와 절대빈곤의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차상위 계층의 숫자는 여전히 많고, 가난은 지역적, 인종적, 성별 차이에 여전히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Pangestu 2003).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세계화의 흐름 속에 노동집약적 상품 수출전략화 정책에 따라 일정하게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절대빈곤은 감소했다. 하지만 이 역시 산업화의 정도가 고도화된 도시지역에 한정된 특징을 보인다. 결국 도시와 농촌지역의 상대적인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도시중심의 산업발전이 오히려 지역 간 불평등을 낳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 간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일정 정도 산업화가 진행되고 지역 간 소득 불평등이 보이는 동남아 주요 국가는 중요한 사례 국가로 의미가 있다.

〈표 1〉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와 하위 10분위 소득점유율 (2002-2014)

	인도네시아		베트남	
	지니계수	하위10분위 소득점유율	지니계수	하위10분위 소득점유율
2002	0.34	3.18	0.37	3.2
2004	0.37	4.05	0.37	2.9
2006	0.37	3.88	0.36	2.9
2008	0.35	3.75	0.36	3.0
2010	0.38	3.90	0.39	2.5
2012	0.41	3.94	0.36	2.8
2014	0.41	3.44	0.35	2.7

주: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통계청과 세계은행 모두 2002년부터 격년별로 지니계수를 제시하고 있음
출처: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Vietnam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I.DST.FRST.10?locations=VN-ID&view=chart>,
검색일: 2019.2.15.)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의 해양부 국가의 가장 많은 섬과 인구수를 가진 도서 국가이다. 도서국가라는 지역적 특성과 다 종족 국가라는 특징에 따라 자카르타와 수라바야 등 주요 도시가 위치한 자바 섬 위주의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수마트라, 깔리만탄, 술라웨시 등 자바 이외의 지역과 경제성장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는 2004년 이후 약 6%라는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함에도, 지난 10년간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기대한 만큼 향상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 되었다(김영훈 2014, 10). 베트남의 경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대륙부에 위치하고 있고, 긴 ‘S’자 모양으로 반도 형태의 국토를 이루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국가가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지역 간 편차와 빈곤 감소는 경제성장 만큼 명확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 간, 계층 간, 부자와 가난한 지역 간의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득 불평등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Ⅲ.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지역 불평등: 지역별(권역별) 현황

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6천만 명의 인구 대국으로 넓은 영토에 다양한 종족이 거주하는 복합사회 성격을 지닌다. 인도네시아는 크게 5개의 섬에 총 33개의 지방자치조직으로 나뉘어져 있다. 인구 백만 이상의 도시가 11개에 이르고, 중·소규모 도시가 72개에 달한다. 하지만, 인도

네시아는 개발도상국 수준의 경제발전에 머물러 있으면, 이 역시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좀 더 범위를 확장하더라도 자바 지역과 그 이외 지역 간 경제성장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서부와 동부 지역의 경제적 격차는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소로 지목된다. 경제 성장에 관한 논의 중 인도네시아 서부와 동부에 대한 구별은 일차적으로 지리적으로 구분된다. 술라웨시(Sulawesi)와 칼리만탄(Kalimantan) 사이의 마카사르(Makassar) 해협과 롬복(Lombok)과 발리(Bali)을 동서로 구분한다. 따라서 수마트라, 자바, 칼리만탄, 발리 지역을 인도네시아 서부지역, 술라웨시, 말루꾸(Maluku), 파푸아 지역(Papua)을 인도네시아 동부지역으로 명명한다. 한편, 실제 경제성장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빈곤한 지역에 대한 인식은 앞서 제시한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 서부와 동부로 구별되지 않는다. 즉,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일부의 빈곤 지역, 자바의 동부 지역에 위치한 일부 주는 비록 지리적으로 인도네시아 서부 지역에 위치하지만,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의 관문인 술라웨시 보다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지표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인도네시아 전체 경제성장률은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에서 2014년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5.53%이고, 2015년에서 2017년의 경제성장률은 4.99%였다. 국가 전체 평균성장률과 비교하여 자바를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의 성장률은 국가 전체 평균과 비슷하거나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누사 땡가라(Nusa Tenggara)와 말루꾸 지역의 대부분은 국가 전체 평균을 하회한다.

지역별 현황을 우선 살펴보면, 2017년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빈곤 비율은 10.12%이다. 인도네시아 서부지역에 위치한 22개 주 중 국가평균을 상회하는 주는 7개주이다. 이에 반해 인도네시아 동부지역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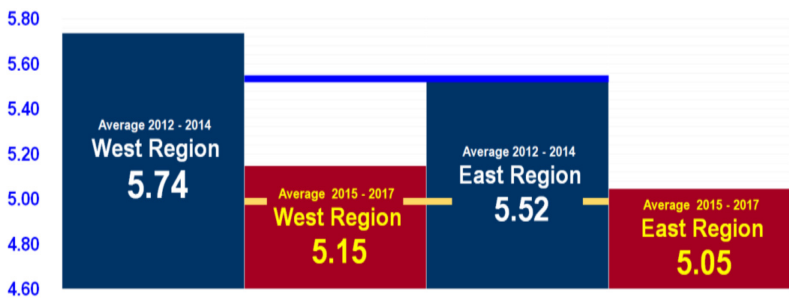
12개 주 중 국가평균을 상회하는 주는 9개이다. 인도네시아의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부 지역이 빈곤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아체나 람퐁주의 경우처럼 빈곤 비율이 국가평균을 상회하거나 자카르타나 발리처럼 선진국 수준의 빈곤율을 보이는 지역도 있다.

〈표 2〉 인도네시아 빈곤 비율

		2012년 9월	2017년 9월
인도네시아 국가평균		11.66	10.12
인도네시아 서부지역주	아체(Aceh)	18.58	15.92
	람퐁(Lampung)	15.65	13.04
	리아우(Riau)	8.05	7.41
	자카르타(DKI)	3.7	3.78
	발리(Bali)	3.95	4.14
인도네시아 동부지역주	파푸아(Papua)	30.66	27.76
	술셀(Sulsel)	9.82	9.48
	술바르(Sulbar)	13.01	11.18
	말루쿠(Maluku)	20.76	18.29
	엔테베(NTB) ³⁾	7.64	7.9

출처 : MNDP & NDPA 2018 재구성

〈그림 1〉 인도네시아 동서지역 성장률 비교



출처 : MNDP & NDPA 2018 참조

3) 누사 똥가라 바랏(Nusa Tenggara Barat): 서부 누사 똥가라주

<그림 1>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GDP의 대부분은 서부지역이 차지한다. 2015년에서 2017년의 경우 자카르타, 서부 자바, 동부 자바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각 17.23%, 13.02%, 14.60%로 동부 지역인 말루꾸의 0.29%에 비하여 월등한 차이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서부 지역은 80.40%를 차지하고, 동부 지역은 19.60%를 차지하는 등 서부와 동부 지역의 지역 내 총생산 역시 큰 차이를 보인다. 2004년부터 2010 기간 사이 자원이 풍부한 지역인 파푸아(Papua), 파푸아 바랏(Papua Barat), 수마트라 유타라(Sumatra Utara), 그리고 술라웨시(Sulawesi) 전 지역은 국가 경제성장률 평균보다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다. 인구가 밀집되고, 좋은 공항과 항구가 있는 지역인 자카르타(Jakarta), 자와 텡가(Jawa Tengah), 자와 티물(Jawa Timur), 반텐(Banten)은 전체 국가평균보다 빠른 성장을 보였다(Kuncoro 2013, 21). 2000년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경제활동의 집중도는 자바(Java)와 수마트라(Sumatra)에 집중되어왔다. 자바섬은 인도네시아 GDP의 57.5-61%를 기여해왔고, 수마트라는 21~23%를 차지한다.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은 나머지 20%를 차지한다. 근대화된 공업시설의 대부분이 자바와 수마트라에 위치하여 인도네시아 산업고용율의 90%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Kuncoro 2013, 22).

인도네시아 전문가들도 인도네시아가 개발도상국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지역 간 격차 해소가 경제 성장을 추동하는데 필수적인 요인⁴⁾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과거 유도요노(Yudhoyono) 정부는 높고 균형잡혔으나 공정하고 지속하는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의 가속화와 확장을 위한 마스터플랜 정책

4) 인도네시아 지역균형개발의 방향과 관련된 답론은 ‘인도네시아 국가 발전 계획부’의 알렌 박사(Dr. Alen Eramanita), ‘인도네시아 사회연구원’의 루돌프 박사(Dr. Rudolf Yuniarto), 막센시우스 박사(Dr. Maxensius Sambodo)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기초로 작성되었음

(Masterplan Percepatan dan Perluasan Pembangunan Ekonomi Indonesia - MP3EI)을 수립하였다(CMEA 2011). 2009년 유도요노 대통령은 2009년 자신의 다음 5년간의 최우선과제는 경제성장을 통한 대중의 복지 향상이라고 밝혔다(Kuncoro 2013, 18).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지역 NGO, 학계, 민간 부문 및 소수종족집단과 같은 이해 당사자와 협력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역균형개발(포괄적 개발)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현 역시 중요한 발전의 방향이자 가치로 상정하고 있다. 특히 각 도서의 잠재성 높은 지역을 발전 중심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와 높은 고용 기회를 추구하고 있다. 도서국가라는 특성을 살려서 해양 중심의 경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운송과 통신망을 구축하여 발전 전략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표 3〉 인도네시아 경제회랑별 개발 테마

구분	경제회랑명	경제회랑 개발 테마	경제회랑 내 주요 경제활동
1	수마트라 경제회랑	농산물 생산과 가공, 에너지 개발	팜 오일, 고무, 석탄, 철광석, 순다해협 교량
2	자바 경제회랑	전국적 산업 육성	식음료, 섬유, 기계, 교통, 선박, 방위산업, 통신, 수도권투자촉진특별구역
3	칼리만탄 경제회랑	광물자원 개발과 가공. 에너지 개발	팜 오일, 석탄, 알루미늄, 보크사이트, 원유 및 천연가스, 합판, 철광석
4	술라웨시 경제회랑	농산물, 발작물, 어업, 원유 및 광산 자원의 생산과 가공	식량농산물, 카카오, 어업, 니켈, 원유 및 천연가스
5	발리-누사틍가라 경제회랑	관광, 국가 식량 생산 기지	관광, 목축, 어업
6	말루꾸 제도-파푸아 경제회랑	식량, 어업, 에너지, 광산 개발 중심	식량농산물, 구리, 목축, 어업, 원유 및 천연가스,

출처: Anwar 2013, 4

더불어 주목되는 부분은 인도네시아의 경제개발 방향을 경제회랑을 통한 경제잠재력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다(Anwar 2013).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진행하겠다는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산업분야와 지역별 접근법을 통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각 지역이 가진 우수성과 잠재력을 토대로 경제개발을 위한 중심축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경제회랑 중심의 경제개발 마스터플랜을 설정한 이유는 응집의 효과 극대화, 지역의 잠재력과 우수성 발굴, 지역 간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제회랑 중심의 경제개발 계획은 재정적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수도인 자카르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경제성장을 위해서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발전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인프라 투자가 적실한 상황에서 자바 이외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한계가 명확하게 표출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지역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민주화이후 지방자치의 확대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지역분산 정책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을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데 있다. 과거 독재정권이었던 수하르토 정권이 물러난 이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지역 자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비록 아제, 이리안 자야, 북술라웨시 지역을 중심으로 분리 독립 요구와 투쟁이 있었지만, 자원이 풍부한 리아우와 깔리만탄 지역부터 자치권 행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과거 군사정부 시절 중앙정부 위주의 지역개발 사업이 가져온 폐단, 즉 지역의 발전 동력과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더불어 수도인 자카르타와 그 이외 지역이 가진 지역개발의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써 수평적 양극화를 지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9년 지방정부에 관한 법률(No.22/1999, Law on Local Government)

이 제정됨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다. 동 법률에 의해, 외교, 안보, 국방, 통화, 종교 등의 영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지방정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1998년 인도네시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 학생, 정치인을 비롯한 공공의 요구에 의해 지역자치권과 재정분권화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후 지역자치 법률안은 1999년 개정되었다(Law 22/1999, 25/1999). 법률안의 통과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수립 이후 지역 통치 방식인 ‘분리 및 규칙 전략(divide and rule strategy)’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법률안은 인도네시아 민주화의 공고화와 공공복지의 확대 차원에서 논의되고 이해되었다. 문제는 지방자치의 확대 이후 지역 불평등이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 베트남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소(Central Institute of Economic Management, CIEM)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층 가구의 수는 2015년 12.9%에서 2016년 16.2%로 증가했다(Vietnamnet 2017/11/15). 또한, 2018년 세계 부 보고서(World Ultra Wealth)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베트남은 부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상위 10개국 중에서 3위를 차지했다(World Ultra Wealth Report 2018, 16).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지니계수는 1993년 0.326에서 2016년 0.353으로 증가했다. 도농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도시 빈곤률은 2010년과 2016년에 각각 6.0%와 1.6%로 나타난 반면에 농촌 지방은 같은 시기에 각각 27.0%와 13.6%를 기록했다. 종족별로 살펴보면, 킨(Kinh, 혹은 비엠티(Viet))족과 호아(Hoa)족의 빈곤률은 2010년과 2016년에 각각 12.9%와 3.1%인 반면에, 그 외 소수종족은 같은 시기에 각각 66.3%와 44.6%를 기록했다. 킨족과 호아족 그리고 그 외 다른

소수종족들 간의 소득 수준 차이는 2004년부터 2010년 사이에 7배에서 8.5배까지 증가했고, 소득 불평등은 2004년부터 2014년 사이에 2.1배에서 2.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의 양상에 따라 지역, 농촌/도시, 젠더 간 소득/임금, 교육, 보건의료 격차 등에 대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베트남은 총 6개 권역, 즉 북부 내륙 및 산악(Northern midland and mountainous region, 14개의 ‘성’(Province)으로 구성), 홍강델타(Red river delta region, 9개의 ‘성’과 2개의 ‘중앙직속시’(Municipality)로 구성), 중부 해안(Central coastal region, 13개의 ‘성’과 1개의 ‘중앙직속시’), 중부 고원(Central highland region, 5개의 ‘성’), 남동부(Southeast region, 5개의 ‘성’과 1개의 중앙직속시), 메콩강델타(Mekong river delta region, 12개의 ‘성’과 1개의 중앙직속시)로 구분된다.⁵⁾ 홍강델타(994명/km²)와 메콩강델타(433명/km²) 그리고 남동부(697명/km²) 권역의 인구밀도는 다른 권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북부 내륙 및 산악(126명/km²) 그리고 중부 고원 권역(104명/km²)은 주로 고산지대 및 산악지역으로 사람들이 이동 및 거주하기에 열악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중부 해안(207명/km²) 역시 쩌엥선(Truong Son) 산맥이 위치해 있고 동-서 간 국토 면적의 폭이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우호적이지 않다.⁶⁾

베트남은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차례 걸쳐 행정 구역을 재편하였는데, 현재는 2008년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 단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제1급 행정구부터 제3급 행정구로 구분되는 단위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상위의 행정 단위에 해당하는 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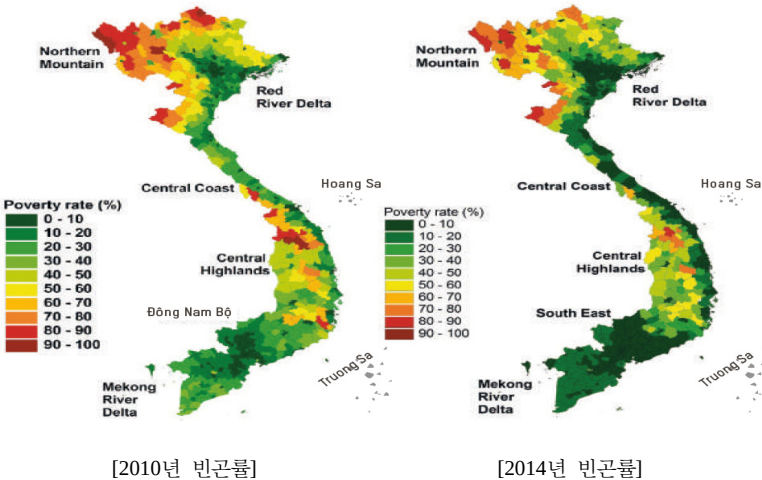
5) 베트남 통계청, 행정단위 통계자료 검색(<https://www.gso.gov.vn/dmhc2015/>, 검색일: 2019.2.16.).

6) 베트남 통계청, 인구밀도 통계자료 검색(<https://www.gso.gov.vn/default.aspx?tabid=714>, 검색일: 2019.2.16.).

급 행정구를 살펴보면, 5개의 ‘중앙직속시’와 58개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직속시는 하노이(Ha Noi), 하이퐁(Hai Phong, 이상 홍강 델타 권역), 다낭(Da Nang, 중부 해안 권역), 호찌민시(Ho Chi Minh City, 남동부 권역), 켄터(Can Tho, 메콩강델타 권역)이다.

권역별 빈곤률과 주요 도시의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이하 GRDP)의 지표를 비교해보면, 베트남 내 지역별 불균형 성장의 윤곽이 드러난다. 베트남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빈곤률 자료에 따르면, 북부 내륙 및 산악이 13.8%, 홍강델타가 2.4%, 중부 해안이 8.0%, 중부 고원이 9.1%, 남동부가 0.6%, 그리고 메콩강델타가 5.2%이다. 홍강델타와 남동부는 중간소득층(middle-income group)이 지나치게 많은 반면에, 메콩강델타의 경우 차상위빈곤층(near-poor group)이 많았고, 북부 내륙 및 산악과 중부고원의 경우 빈곤층(poor group)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베트남 지역별 빈곤률 (2010년과 2014년)



자료: World Bank Vietnam 2015

베트남 계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는 매 10년마다 사회경제개발전략(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이하 SEDS)을 수립하고 매 5년 단위로 그 성과를 검토 및 평가하며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는 사회경제개발계획(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이하 SEDP)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각 권역 및 주요 도시별로 특정 시기까지의 경제(GDP 성장률, 1인당 평균 소득, 수출 비중, 기술의 개혁개방 속도 등) 및 사회문화(도시화율, 직업훈련을 받은 노동인력 비율, 빈곤층 비율 등) 부문에 대한 목표 설정과 함께 주요 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사회경제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한다.

북부 내륙 및 산악 권역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북부 중점 경제 권역에 대한 마스터플랜(198QĐ-TTg, 2014/01/25)을 살펴보면, 북부는 전자 및 정보통신, 고품질 철강 및 특수강 제조 산업 분야의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원료, 제약, 식품 가공 산업을 확대시키고자 한다. 홍강 델타 권역(795QĐ-TTg, 2013/05/23)의 경우 전자 및 정보통신, 가공 기계, 선박 및 해상 운송 수단 정비, 특수강 산업 분야의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제약, 농림수산물 가공 등의 산업 분야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중부 해안(1874QĐ-TTg, 2014/10/13)의 경우, 석유화학 산업 발전, 선박 건조 및 수리와 같은 해양 관련 산업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유산, 역사 유적, 해양 생태 관광 등을 기반으로 지역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금융, 은행 등 서비스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부 고원(1194QĐ-TTg, 2014/7/22)의 경우, 수력발전, 생태관광, 커피 등 농림수산물의 가공업, 휴양 관광, 광산업, 하이테크 농업 부문의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남동부(943QĐ-TTg, 2012/7/20)의 경우, 첨단기술과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제조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하고, 청정산업, 원자재

및 에너지, 금융, 은행, 보험, 무역, 유통 등의 발전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성격의 대규모 통합 서비스 중심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콩강델타 권역(245QD-TTg, 2014/2/12)의 경우, 전력 및 에너지 산업과 바이오매스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고 농림수산물 및 식료품 가공 산업 발전 및 다양한 제품 생산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 기준 권역별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이하 GRDP) 성장률을 살펴보면, 홍강델타 권역이 12.02%로 가장 높았고, 북중부 및 중부연안이 8.61%, 북부 내륙 및 산악이 8.43%, 메콩강델타가 7.61%, 중부고원이 7.28%, 그리고 남동부가 4.17%를 기록했다. 북부와 중부 지역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산업 및 건설업 부문의 발전이 남부에 비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표 4〉 베트남 6개 권역별 불균형 양상 (2016년 기준)

권역	면적 (km ²)	인구밀도 (명/km ²)	빈곤률 (%)	소득층의 특징
북부 내륙 및 산악	95,200.0	126	13.8	빈곤층 다수
홍강델타	21,260.3	994	2.4	중간소득층 다수
중부 해안	95,649.6	207	8.0	중간소득층과 빈곤층 혼재
중부 고원	54,508.0	104	9.1	빈곤층 다수
남동부	33,552.6	697	0.6	중간소득층 다수
메콩강델타	40,816.3	433	5.2	차상위 빈곤층 다수

출처: 베트남 통계청(검색일: 2018.8.20.).

IV.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지역발전정책과 문제점

이 장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정부의 지역발전의 특징과 문제점을 검토한다. 나아가 각국이 가진 정치·사회적 특징을 반영한 균형성

장 전략을 제시한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정부는 현재 지역불균형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경제성장의 기본전략도 균형발전전략과 하향적/외생적 추진전략으로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추동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 추진에 있어 성과가 기대보다 약하거나 문화적, 지리적, 종족적 다양성과 분절적 국내 상황으로 인해 한계가 엿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인도네시아는 주요 지역들이 섬으로 구성된 지리적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각 섬의 중심 거점 도시 육성이 다른 국가와는 달리 균형발전을 추동하는 원리로 작용할 수 있다. 중앙정부 역시 경제발전을 위한 불균형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별로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군사정부 시절 중앙정부가 주도한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의 자체 발전 동력 미확보와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등의 폐단과 부작용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정책이 지역 이기주의, 편협한 태도, 낮은 수준의 재정자립도가 상존하고, 이는 자원 동원의 한계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권한 등에 대한 정확한 구분 없이 시작된 제도가 도리어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된다. 실제 분석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발전정책과 지방자치제의 확대가 오히려 지역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연구가 있다. 쿤코로(Kuncoro)는 분석을 통해 2001년부터 2010년 기간 사이에 인도네시아의 섬간, 섬내의 지역불균등성 모두 유도요노 대통령의 경제발전 정책 추진 이후 더 증가하였음을 발견하였다(Kuncoro 2013, 31).

또한 1999년 실시된 지방자치는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주요한 제도적 근간이 될 수 있었지만, 이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미흡과 지방정부의 준비부족 등의 요인으로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쿤코로는 분석을 통해 2000년 이후 지방정부들이 자율성을 얻은 후에 지역 간 불평등성은 더욱 증가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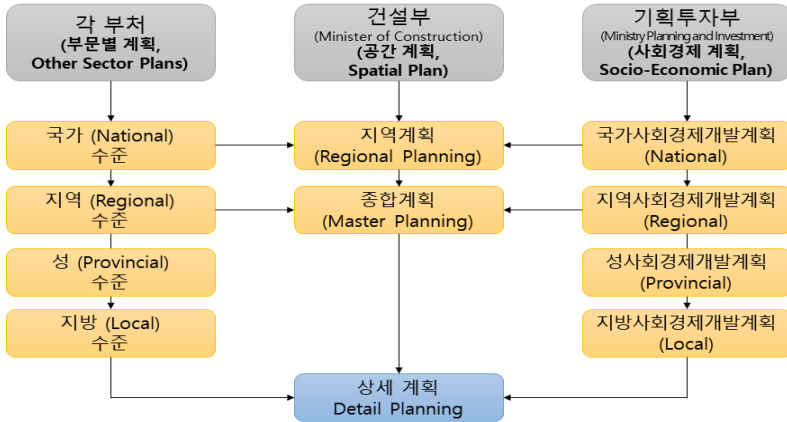
(Kuncoro 2013, 31). 과거 경제성장 정책과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의 확대가 결합되어 지역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현 조코위 신정부는 출범 이후 해양중심국가 건설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주요한 정책기조로 하여 인프라 확충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중기 국가개발계획과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역시 인프라개발, 지역균형개발,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을 중요한 가치로 설정한 상황이다. 동부와 서부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도로연장과 철도와 항만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도시지역 균형개발 전략과 함께 저개발된 지역 특히 농촌지역 발전전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MNDP & NDPA 2018, 13). 하지만 도서 국가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지역 간 경제적 격차, 낮은 재정자립도, 낮은 생산성, 낮은 노동참여율 그리고 지역과 종족이 상호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갈등 등은 균형발전정책 추진의 어려움이다.

한편, 베트남은 공산당의 “공평”과 “민주”적인 정책 기조에 맞추어 국토균형개발과 지속가능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⁷⁾ 베트남에서 지역/도시 발전 계획과 관리는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의 공간계획(Spatial plan)과 계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의 사회경제개발전략(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그리고 각 부처(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와 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의 교통 및 토지 계획 등)의 부문별 계획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각 부처별 국가(national), 성(provincial), 그리고 지방(local, district and ward level)별로 수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종합하여 상세 계획이 마련된다(아래 <그림 3> 참조).

7) 베트남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 부이꽁뚜언(Bui Quang Tuan, 2018년 7월 12일 인터뷰)

〈그림 3〉 베트남 지역개발계획 체계도



출처: 일본 국토교통성 자료와 베트남 건설부 및 계획투자부 자료 참고하여 작성

건설부는 국토의 체계적인 종합개발을 위하여 2009년 4월에 2025년까지의 도시 개발 마스터플랜 및 2050년 비전(Adjustment of Orientation Master Plan for Urban Development until 2025 with a vision to 2050, 이하 AOMP)의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이는 국가 전체 공간 및 인프라 계획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해당한다.⁸⁾ AOMP의 주요 내용은 2015년까지 주요 경제권역, 대도시를 우선 개발하여 국가 성장거점을 구축하고, 2025년까지 5대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네트워크를 형성시켜 개발을 도모하며, 2050년까지 주변 지역으로 개발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OMP는 2015년까지 주요 경제 지역 및 해안에 위치한 경제 구역에 대한 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북서부, 북중부, 남중부, 중부 고원 및 메콩델타에 있는 2차 성장지대 도시 구역의

8) Decision No. 445/QĐ-TTg on APPROVING MODIFICATION OF THE MASTER PLAN FOR DEVELOPMENT OF VIETNAM'S URBAN SYSTEM BY 2025 WITH VISION TO 2050 (<https://vanbanphapluat.co/decision-no-445-qd-ttg-modification-of-the-master-plan-for-development-of-vietnam-s-urban-system>, 검색일: 2018.08.10.).

개발을 촉진하며, 노동집약산업의 생산 기반 시설, 산업, 서비스 및 상업 지역의 개발에 투자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2025년까지 분산 개발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화된 지역 개발을 우선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도시 네트워크 모델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연계 그리고 6개 권역을 고려하여 분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⁹⁾ 북부-중부-남부 및 동부-서부, 그리고 도시-농촌 간 발전의 조화를 추구하며, 각 도시 지역의 위치, 역할, 기능에 부합하도록 투자, 업그레이드, 건설을 추진하고자 노력한다.

계획투자부의 사회경제개발전략(이하 SEDS)은 사회경제적 수준의 지역 잠재력을 개척하기 위한 최상위 정책이다. 2011-2020 SEDS에서 국토개발은 지역 간 통합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 개발은 대도시 및 중소도시 간 통합적/친환경적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며, 교통인프라는 남북 간/동서 간 통합적 교통 회랑 구축과 광역 도로 및 고속철도 건설 투자 유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계획투자부는 국가 전체 균형발전 및 지역개발 창출, 도시와 농촌 간연계성을 고려한 발전을 위하여 6개 권역별 사회경제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¹⁰⁾ 여기에는 각 성마다 별도의 지역 소도시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세부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부처별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은 아래 <표 5>에 정리하였다.

9) 전국 도시 네트워크는 중심 도시 구역(① 하노이, 호찌민시와 같은 국가, 지역, 및 국제적인 도시, ② 하이퐁, 다낭, 그리고 후에와 같은 자치 도시, 그리고 ③ 하롱(Ha Long), 비엠티(Viet Tri), 타이응웬(Thai Nguyen), 호아빈(Hoa Binh), 남딘(Nam Dinh), 빈(Vinh), 나짱(Nha Trang), 퀴년(Quy Nhan), 부온마투옿(Buon Ma Thuot), 비엔호아(Bien Hoa), 붕따우(Vung Tau), 켄터(Can Tho)와 같은 지역 수준의 중심 도시 등)을 기초로 설립되고 발전됨.

10) 각 권역별 마스터플랜에 대한 총리 결정문서의 번호와 공포일은 다음과 같다. 북부 내륙 및 산악 권역(198QĐ-TTg, 2014/01/25), 홍강델타 권역(795QĐ-TTg, 2013/05/23), 중부 해안 권역(1874QĐ-TTg, 2014/10/13), 중부 고원 권역(1194QĐ-TTg, 2014/7/22), 남동부 권역(943QĐ-TTg, 2012/7/20), 메콩강델타 권역(245QĐ-TTg, 2014/2/12) (이상 출처: 베트남 정부 홈페이지)

〈표 5〉 베트남 책임 부처별 국토 및 도시 개발 관련 주요 정책 및 내용

책임 부처	정책	문서 번호	내용
건설부 (Ministry of Construction (MOC))	Adjustment of Orientation Master Plan for Urban Development until 2025 with a vision to 2050 (AOMP)	Decision of the Prime Minister, No. 445, 2009	- 2020년까지의 기존 마스터 플랜(결정문 10/1998)을 대체한 수정본 - 공간 계획 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틀의 기초 문서, 도시 개발 계획 및 도시 분류 체계 구현을 위한 토대 제공 - 사회경제적 개발 계획의 요구 사항에 따라 분산된 개발을 최소화하고 도시 네트워크 기반 개발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
	National Urban Development Programme 2012-2020 (NUDP)	Decision of the Prime Minister, No. 1659, 2012	- AOMP 시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보다 정교화된 프로그램 - 성 및 지방 정부가 2020년까지 도시 개발의 핵심 국가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 틀로서 역할을 함
	National Urban Upgrading Programme (NUUP)	Decision of the Prime Minister, No. 758/QD-TTg, 2009	- 4개 주요 도시(호찌민, 껀터, 하이퐁, 남단)의 빈곤 지역의 생활 환경 및 환경 위생 개선을 목표로 함 - 사회경제적 계획에 따라 빈곤 감소에 초점을 둔 저소득층을 위한 포괄적인 투자 프로그램
계획투자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	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2011-2020	Decision of the Prime Minister, No. 432/QD-TTg, 2005	- 사회주의 지향, 산업화와 현대화를 촉진, 사회적 진보와 평등 및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발 목표 확인
	The Viet Nam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2011-2020	Decision of the Prime Minister, No. 432/QD-TTg, 2012	- 2020년까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핵심 국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역 및 지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 정책 틀을 제공함

출처: OECD (2018, 68).

하지만, 이상과 같은 정책은 정부 부처 간 분산된 권한과 계획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중첩된 권한과 이행 계획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은 제11차 당 대회에서 인프라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주요 도시와 지방을 연결하는 인프라를 발전시키

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국가 수준의 지역 및 도시 개발 관련 정책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¹¹⁾

우선 정책적으로 살펴보면, 승인된 도시 개발 관련 정책 프로그램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고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건설부의 AOMP와 계획투자부의 SEDS가 서로 상충하고 있다. 즉, AOMP는 SEDS의 요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SEDS에 기초한 투자 계획 역시 공간적 함의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베트남 지역개발에서 중요한 문제는 하노이와 호찌민시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지역에 공공 및 민간 투자가 집중해있고 중소도시로의 투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계획투자부는 기존 6개 권역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의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권역별 특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문화 정책을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원인들 중 하나는 지방 수준에서의 투자 허가 승인과 관련이 있다. 지방 당국은 발전을 위하여 가능한 많은 해외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며 이 때문에 국가 마스터플랜에 따른 지역별 중점 산업이나 지역 특색에 기초한 발전 잠재력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계획투자부는 주요 6개 권역 내에 위치한 중점 경제 소지역을 기반으로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했지만,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1) 베트남 계획투자부 발전전략연구원, 지역발전부 팀장 까오응옥란(Cao Ngoc Lan), 인프라발전부 팀장 레아인트웬(Le Anh Tuan) (2018년 7월 17일 인터뷰)

〈표 6〉 인도네시아, 베트남 지역성장 정책 내용

구분	인도네시아	베트남
정책	중기국가개발계획, 경제발전5개년계획	건설부, 2025년까지 도시체계 마스터플랜 및 2050 비전(AOMP), 계획투자부,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권역별 사회경제개발 마스터플랜
개발방향	해양중심 국가건설, 지역 간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공산당의 정책기조: 공평과 민주, 국토균형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주요전략	동부와 서부의 지역격차 해소정책, 지역균형개발, 지속가능한 발전 도로연장, 철도개발, 항만개발,	국가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주요 경제권역 개발, 도시화된 지역 개발 우선, 도시 개발 확산, 교통인프라 조기 구축
개발주체	중앙정부-지방정부 권한 분산	중앙정부-지방정부 권한 분산
정책추진 에서의 어려움	매우 큰 지역 간 격차, 낮은 수준의 재정자립도, 낮은 생산성, 낮은 노동참가율	도시개발정책 성과 나쁨, 하노이와 호치민에 개발 집중, 지역개발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조정의 어려움, 예산 분리 등

V. 결론

본 논문은 동남아 국가들의 지역불평등 현황과 각 정부의 발전 정책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의 해양부와 대륙부에 각각 위치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지리적 조건과 지역 간 편차 등으로 인하여 소득불평등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국가를 우선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동서간의 지역발전과 소득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6개의 경제회랑 설정, 해양중심국가 건설과 지

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개발 을 위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핵심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개발에 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수도권 중심의 개발 계획 등으로 인하여 지역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트남은 6개 권역을 7개 권역으로 재편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그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¹²⁾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여러 조건들 중에서 정부의 역할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역 균형 성장을 추진하는 정책은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권한이 분산되어 그 집행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지역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경제발전 정책은 경제자원이 집중되어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오히려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민주화 이후 확대된 지방자치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약화시켜 자원배분의 합리적 조정과 계획된 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가로막았다. 그 결과,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과 행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두 국가는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행정체계 개선과 권한의 재분배를 추진할 필요가

12) 2019년 1월 계획투자부는 국가를 현행 6개 대신 7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2021-2030 베트남 지역 구분’의 시행을 위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7개 권역은 북동부(7개 ‘성’), 북서부(7개 ‘성’), 홍강델타(11개 ‘성’과 ‘시’), 북중부(5개 ‘성’), 남중부(11개 ‘성’과 ‘시’), 남동부(9개 ‘성’과 ‘시’), 메콩강델타(13개 ‘성’과 ‘시’)로 구분된다(Tuoi Tre 2019/1/10). 기존 6대 권역과 비교해볼 때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기존 북부 내륙 및 산악 권역에 해당하는 14개의 ‘성’들을 북동부(7개)와 북서부(7개)로 구분하였다. 기존 중부 해안 권역과 서부고원 권역에 해당하는 19개의 ‘성’과 ‘시’들은 북중부(5개의 ‘성’)와 남중부(11개의 ‘성’과 ‘시’)라는 새로운 권역명 하에,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성’, 즉 럼동(Lam Dong), 닌투언(Ninh Thuan), 빈투언(Binh Thuan)은 남동부 권역에 편입시켰다. 홍강델타와 메콩강델타 권역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다.

있고, 육성 정책 또한 더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국은 현재 신남방정책을 표방하며 동남아 지역 국가들과 다양한 측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앞선 경험이 지역 간 불평등으로 경제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에 도입된다면, 향후 해당국가와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는 경제원조 등에 머물러 있는 이 지역 국가와 관계가 신남방정책의 주요한 방향인 인적교류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투 고 일: 2019년 1월 23일

심 사 완 료 일: 2019년 2월 25일

게 재 확 정 일: 2019년 2월 26일

참고문헌

- 김영훈. 2014. “친서민 개혁정치의 시작: 여소야대 정국, 화교자본 등 개혁 추진 걸림돌.” 『Chindia Plus』 96 : 10-12.
- 박재봉. 2014. “정치 개혁과 경제적 불평등 해결: 인도네시아의 2014 선거와 조코위(Jokowi) 효과”. 『동남아연구』 24(2) : 47-92.
- 이건범. 2003. “불평등과 성장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 경로.” 『응용경제』 5(1) : 91-139.
- 이양호. 2013. “말레이시아에서의 불평등과 빈곤.” 『동남아시아연구』 23(1) : 127-167.
- 전해정. 2014. “경제성장과 소득 불균형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5(2) : 95-111.
- 한국국제협력단. 2014. 『개발학 강의』. 푸른숲.
- ADB. 2018. *Asia Development Outlook 2018: How Technology Affects Jobs*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411666/ado2018.pdf>).
- Anwar, Ratih. 2013. “Prospects and Challenges for Manpower Policy in the

- Masterplan for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s Economy Development.”(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16283763_gyeongjeonseol-eul_wihan_indonesia_jeongbuui_maseuteop_eullaengwa_inlyeogbun-ya-eseoui_dojeongwa_jeonmang_Prospects_and_Challenges_for_Manpower_Policy_in_the_Masterplan_for_Acceleration_and_Expansion)
- Barro, R., 2000, “Inequality and Growth in a Panel of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 Growth* 5(1) : 5~32.
- Coordination Minister of Economic Affairs(CMEA). 2011. *Masterplan for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2011-2025*. Jakarta: 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Republic of Indonesia.
- Dang, H. A. 2012. “A Widening Poverty Gap for Ethnic Minorities” In G. H. Hall and H. A. Patrinos (eds), *Indigenous Peoples, Poverty and 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an Hai Yen, Nguyen Thi Thuy Trang, and Nguyen Ha Linh. 2015. “Analysis of Income Inequality by Regions in Vietnam Through the Approach of Income Decompositions”. In *Proceedings of the Scientific Conference on Socioeconomic Forecast Serves Medium-Term Planning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Hanoi: Hong Duc Publishing House.
- Feriyanto, Nur. 2012.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Economy in Special Region of Yogyakarta*. Ekuitas: Jurnal Ekonomi dan Keuangan.
- Forbes, K. J., 2000, "A Reassess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equality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 869~887.
- Garcia-Mil C, T. and McGuire, T.J. 2001. “Do Interregional Transfers Improve the Economic Performance of Poor Regions? The Case of Spain.”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8: 281-295.

- Glewwe, P., M. Gragnolati, and H. Zaman. 2002. "Who Gained from Vietnam's Boom in the 1990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50(4): 773 - 92.
- Hill, Hal. 2008. "Globalization, Inequality, and Local-Level Dynamics: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Asian Economic Policy Review* 3 : 42-61.
- Kaufman, M. Swagel, P. and Dunaway, S. 2003. "Regional Convergence and the Role of Federal Transfer in Canada." WP/03/97,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700 19th Street, N. W., Washington, D. C. 20431.
- Kessler, A. S. and Lessmann, C. 2008. "Interregional Redistribution and Regional Disparities: How Equalization Does (Not) Work." Online version accessed 10 April 2014,
- Kuncoro, Mudrajad. 2013. "Economic Geography of Indonesia : Can MP3EI reduce Inter-Regional Inequality?" *South East Asia Journal of Contemporary Business, Economics and Law*, 2(2) : 17-33.
- Kusnic, Michael W. and Julie DaVanzo. 1982. "Who are the Poor in Malaysia? The Sensitivity of Poverty Profiles to Definition of Incom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8 : 17-34.
- Kuznets, Simon. 1955.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45(1) : 1-28.
- Lee, S. 2008. *How do Women Fare in Education, Employment and Health?*. Hanoi: World Bank Vietnam.
- Lessmann, C. 2006. *Fiscal Decentralisation and Regional Disparity: A Panel Data Approach for OECD Countries*. 25, IFO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University of Munich.
- Li, H. and Zou, H., 1998, "Income Inequality is Not Harmful for Growth: Theory and Evidence.",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2(3) :

318~334.

Luong Thi Ngoc Oanh. 2015. “The Impact of Gender Inequality to Grow in Vietnam”. PhD thesis, CIEM.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MNDP & NDPA). 2018. *Building Indonesia from the East: Development Prospects and Challenge*.

Nguyen Thanh Ha, and Luu Bich Ngoc. 2015. “Approach Innovation and Growing Strategic to Address Income Inequality in Vietnam”. In *Proceedings of the Scientific Conference on Socioeconomic Forecast Serves Medium-Term Planning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Hanoi: Hong Duc Publishing House.

Nguyen Viet Cuong. 2012. “Gender Equality in Education, Health care and Employment: Evidence from Vietnam”. Working Paper. Germany: University Library of Munich.

Pangestu, M. 2003. “The Indonesian Bank Crisis and Restructuring: Lessons and Implications for Other Developing Countries.” *G-24 Discussion Paper No.23*. United Nations

Perotti, R., 1996, "Growth, Income Distribution, and Democracy: What the Data Say", *Journal of Economic Growth* 1(2) : 149~187.

Rachmawati, R., Prakoso, E., Sadali, M.I. and Yusuf, M.G., 2018. “Riparian planning in Yogyakarta City.” In *IOP Conference Series: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 148(1) : 012009.

Ranis, Gustav, 1995. "Another Look at the East Asian Miracle," *The World Bank Review* 9(3) : 509-534.

Rodrik, D. 1995. “Getting Interventions Right: How South Korea and Taiwan get rich”, *Policy*, April.

Rodrik, D. and Alesina, A., 1994, “Distributive Politics and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 : 465~190.

- Rodger, Y., and N. Menon. 2010. *Gender Differences in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Evidence from Vietnam Household Living Standard Survey in 2008*. Hanoi: World Bank Vietnam.
- Sala-I-Martin X. 1996. "The Classical Approach to Convergence Analysis." *Economic Journal* 106 : 1019-1036.
- Shankar R., Shah A. 2003. "Bridging the Economic Divide within Countries: Scorecard on the Performance of Regional Policies in Reducing Regional Income Disparities." *World Development* 31(8) : 1421-1443.
- Singhal, S., and U. Beck. 2015. "Ethnic Disadvantage in Vietnam: Evidence Using Panel Data". UNU-WIDER Working Paper 2015/097. Helsinki: UNU-WIDER.
- Sriskandarajah, Dhananjayan. 2005. "Development, Inequality and Ethnic Accommodation: Clues from Malaysia, Mauritius and Trinidad and Tobago." *Oxford Development Studies* 33(1) : 63-79.
- UNRISD(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2010. *Combating Poverty and Inequality: Structural Change, Social Policy and Politics*. Paris: UNRISD publication.
- Van de Walle, D., and D. Gunewardena. 2001. "Sources of Ethnic Inequality in Viet Nam".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65(1): 177 - 207.
- Vu, X-B. Nguyen, D-T. and Nghiem, H-S. 2011. "Provincial Output Disparities in Vietnam: 1990-2008."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Science, Economics, and Arts, Malaysia : 32-39.
- Vu, X. B., Nguyen, D. T., Smith, C., & Nghiem, H. S. 2015. "Vietnam's Responses to Provincial Economic Disparities through Central-Provincial Government Financial Relations." *Australasian*

Journal of Regional Studies, 21(1) : 103-137.

- Weil, David N. 지음. 백웅기·김민성 옮김. 2013. 『경제성장론』 시그마프레스.
- Winters, Jeffrey A. 2013. “Oligarchy and Democracy in Indonesia.”
Indonesia 96 : 11-33.
- Winters, Jeffrey A. 2011. “Who will tame the oligarches?” Inside Indonesia
104
- World Bank. 1993.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 World Development Report. 2009. *Reshaping Economic Geography*. the
World Bank. 1818 H Street NW, Washington, DC 20433.

· 인터넷 자료

- 베트남 통계청, 행정단위 통계자료 검색(<https://www.gso.gov.vn/dmhc>
2015/, 검색일: 2019.2.16.).
- 베트남 통계청, 인구밀도 통계자료 검색(<https://www.gso.gov.vn/default.aspx?tabid=714>, 검색일: 2019.2.16.).
- “2011-2020 베트남 지속가능발전 전략” (432/QĐ-TTg: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Chiến lược Phát triển bền vững Việt Nam giai đoạn 2011 - 2020,
http://vanban.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hethongvanban?class_id=2&mode=detail&document_id=157753, 검색일: 2018.08.16.).
- “2020년까지 남동부 사회경제발전 마스터플랜 승인 결정문”(Quyết định
số 943/QĐ-TTg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 Phê duyệt Quy hoạch tổng
thể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vùng Đông Nam Bộ đến năm 2020,
http://vanban.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hethongvanban?class_id=2&_page=1&mode=detail&document_id=162433,
검색일: 2018.08.16.).
- “2020년까지 메콩강델타 중점 경제지역 사회-경제 발전 마스터 플랜 및
2030 비전 승인 결정문”(Quyết định Phê duyệt Quy hoạch tổng thể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vùng kinh tế trọng điểm vùng Đồng bằng sông Cửu Long đến năm 2020, định hướng đến năm 2030, <http://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noidungquyhoachvung?docid=2657&subtract=&strutsAction=ViewDetailAction.do>, 검색일: 2018.08.16.).

“2020년까지 북부 중점 경제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 마스터 플랜 및 2030년 비전 승인 결정문”(Quyết định Phê duyệt Quy hoạch tổng thể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vùng kinh tế trọng điểm Bắc Bộ đến năm 2020, định hướng đến năm 2030, <http://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noidungquyhoachvung?docid=2595&subtract=&strutsAction=ViewDetailAction.do>, 검색일: 2018.08.16.).

“2020년까지 중부의 중점 경제 지역(후에, 다낭, 꽝남, 꽝응아이, 빈딘) 사회-경제 발전 마스터 플랜 및 2030 비전 승인 결정문”(Quyết định Phê duyệt Quy hoạch tổng thể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vùng Kinh tế trọng điểm Miền Trung đến năm 2020, định hướng đến năm 2030, <http://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noidungquyhoachvung?docid=3156&subtract=&strutsAction=ViewDetailAction.do>, 검색일: 2018.08.16.).

“2020년까지 홍강델타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 마스터 플랜 승인 결정문”(Quyết định Phê duyệt Quy hoạch tổng thể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vùng Đồng bằng sông Hồng đến năm 2020, <http://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noidungquyhoachvung?docid=1855&subtract=&strutsAction=ViewDetailAction.do>, 검색일: 2018.08.16.).

“2025년까지 베트남 도시 체계의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2050년 비전의 수정 승인에 대한 결정문”(Decision No. 445/QĐ-TTg on APPROVING MODIFICATION OF THE MASTER PLAN FOR DEVELOPMENT OF VIETNAM’S URBAN SYSTEM BY 2025

WITH VISION TO 2050, <https://vanbanphapluat.co/decision-no-445-qd-ttg-modification-of-the-master-plan-for-development-of-vietnam-s-urban-system>, 검색일: 2018.08.10.).

“2030년까지 서부 고원 건설 계획 마스터 플랜 및 2030 비전 승인 결정문”(Quyết định Phê duyệt Quy hoạch xây dựng vùng Tây Nguyên đến năm 2030, <http://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noidungquyhoachvung?docid=3015&substract=&strutsAction=ViewDetailAction.do>, 검색일: 2018.08.16.).

OECD (2018). OECD Urban Policy Reviews: Viet Nam, OECD Publishing, Paris. p.68 (<https://books.google.co.kr/books?id=TtVKDwAAQBAJ&pg=PA48&lpg=PA48&dq=vietnam+region+disparity&source=bl&ots=NlUuvDDlF&sig=g-BFLxb2uLbyjy4p4OP1vs9dFUA&hl=ko&sa=X&ved=2ahUKEwjzsvTVie7dAhVDjLwKH Y5LB9wQ6AEwCXoECAAQAQ#v=onepage&q=vietnam%20region%20disparity&f=false>)

Tempo. “S. Sulawesi Could Drive Eastern Indonesia’s Economy: Jokowi” (<https://en.tempo.co/read/871553/s-sulawesi-could-drive-eastern-indonesias-economy-jokowi>. 검색일: 2019. 2.18.).

Tuoi Tre. “Chia cả nước thành 7 vùng, Long An và Tiền Giang thuộc Đông Nam bộ[국가를 7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롱안과 띠엔장성은 남동부에 속한다](2019/1/10).”(<https://tuoitre.vn/chia-ca-nuoc-thanh-7-vung-long-an-va-tien-giang-thuoc-dong-nam-bo-20190110160514174.htm>, 검색일: 2019.2.16.).

Vietnam Investment Review. “Thai Nguyen to be industry hub (2018/07/02)” (<https://www.vir.com.vn/thai-nguyen-to-be-industry-hub-60623.html>, 검색일: 2018.10.10.).

Vietnamnet. “Number os super-rich people boom, poor households on the rise(2017/11/15).” (<https://english.vietnamnet.vn/fms/business/>

190118/number-of-super-rich-people-boom-poor-households-on-the-rise.html, 검색일: 2019.2.16.).

World Ultra Wealth Report (2018: 16). (<https://www.wealthmanagement.com/sites/wealthmanagement.com/files/wealth-x-wealth-report.pdf>, 검색일: 2019.2.16.).

· 인터뷰 대상

[인도네시아]

Dr. Alen Ermanita,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국가 발전 계획부)

Dr. Rudolf Yuniarto,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인도네시아 사회과학연구원)

Dr. Maxensius Sambodo,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인도네시아 사회과학연구원, 이상 2018년 7~8월 이메일 인터뷰)

[베트남]

부이꽁뚜언(Bui Quang Tuan), 베트남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소장, 2018/7/12 인터뷰

레반흥(Le Van Hung), 베트남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지역경제연구부 부팀장, 2018/7/13 인터뷰

까오응옥란(Cao Ngoc Lan), 베트남 계획투자부 발전전략연구원 지역발전부 팀장

레아인뚜언(Le Anh Tuan), 베트남 계획투자부 인프라발전부 팀장

도안반민(Doan Van Minh), 베트남 계획투자부 지역발전부 연구원, 이상 2018/7/17 인터뷰

Abstract

An Inquiry of Regional Inequality and Development Policy in Southeast Asia :

Focusing on Indonesia and Vietnam

Sung-Woo Lee

(Peace & Democracy Institute at Korea University)

Yong-Hun Beak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at Sogang University)

Jeonghun Jeong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at Sogang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inquire regional inequalities and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to analyze problems of government's policies. This article selected Indonesia among maritime nations and Vietnam among continental nations in Southeast Asia. As a result, this article found that regional inequality of two countries did not decrease in spite of their economic develop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of two countries exacerbated regional inequality. And, Failures of adjust authority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bstructed reasonable adjustment of resource distribution and effective execution of development plan. This article suggests the necessity of reconsidering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and readjusting authority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for easing regional inequality in Indonesia and Vietnam.

Keywords: Regional inequality, Balanced development, Indonesia, Vietnam